

# 작년 韓기업 M&A 668건 509.4조원

## 전기·전자, 도·소매유통 분야 M&A 증가세 뚜렷·대기업집단·화학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중심

지난해 한국내 기업들간의 기업결합(M&A)규모가 총 668건, 509.4조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를 활발히 추진했으며 전기·전자와 도·소매유통 분야의 M&A 증가가 두드러졌다.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기업결합 심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M&A 건수는 총 668건이며 금액은 509.4조원이었다.

전년의 646건, 533.6조 원에 비해 건수는 22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84조원 가량 감소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514건, 53.8조원으로 전년의 490건, 26.3조원에 대비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했다. 반면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4건, 455.6조원으로 전년의 156건,

567.3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세계 경제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했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도·소매 유통, 운수물류, 정보통신·방송 등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구조 개편과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35건, 18.9조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하만(Harman)의 9.3조원 규모 M&A와

롯데제과·롯데쇼핑 건(3.9조 원)과 같은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업결합 등이 추진된 결과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4건으로 2건 감소했고 금액도 전년 대비 19.7% 감소한 455.6조원에 그쳤다. 결합 건수에 비해 금액 감소폭이 큰 것은 전년과 비교, 20조 원 이상의 초대형 M&A가 6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8%(47건→41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3.2조원에서 9.6조원으로 200%나 증가했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EU(13건), 미국(12건), 일본(5

건), 중국(2건) 순이었으며, 미국 기업은 50%(8건→12건) 증가한 반면 중국 기업은 80%(10건→2건)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68건의 M&A 심사 결과 경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우·듀폰(Dow-Dupont) 건 등 총 4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28건에 대해 총 5억 77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 기업의 사업재권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 삼계탕, 中 수출업체 8곳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등록된 작업장 중 가공장은 청현, 은진식품, 자연의벗, 진한식품, 도야지푸드, MC푸드 등 6곳이다. 도축장은 울퉁, 동우팜투데이블 등 2곳이다.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11곳에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작업장에서 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JB카드 신학기 페스티벌 3월 말까지

#### 전북은행, 업종별 누적 30만원 이상 결제 최대 3만원 쿠폰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19일부터 3월 말까지 JB카드 신학기 페스티벌 행사를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JB카드 회원들이 가전, 가구, 도서, 학원, 헬스 가맹점에서 각 업종별로 누적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고객별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전 판매점에서 누적 30만원을 이용하면 1만원, 학원에서 누적 50만원을 이용하면 2만원의 쿠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소셜커머스 위메프, 티몬과의 제휴 행사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별 3만원 이상 이용하는 개인카드 회원들에게는 1월 1회 30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가전 제품 구매를 앞두



전북은행 전경 사진

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도내 하이마트에서 100만원 이상 이용시 5만원 청구할인 혜택과 함께 행사 참여 고객들에게는 코넬 밀폐용기 6중세트와 12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이 동시에 제공된다. /뉴시스

### 韓식품 특허, 최근 10년간 9959건 출원... 세계 7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1998년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7년 말 현재 9959건이 출원돼 7070건이 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다.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을 ▲유럽연합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한국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등의 순이다. /뉴시스

### 금감원, 상호금융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1038억원 환급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1038억원을 환급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6주간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미사용계좌 22만개를 해지하고 1038억원을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1억 2800만 계좌) 및 상호금융 조합 전체 개인계좌의 48.5%(4800만 계좌)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주간 은행권 미사용계좌 정리 캠페인을 통해 은행계좌 96만개를 해지하고 3706억원을 환급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편에 맞춰 상호금융권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기간 중 상호금융권역별 해지금액은 농협(688억원), 수협(159억원), 새마을금고(156억원), 신협(30억원), 산림조합(4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주기적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달 22일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보다 편리하게 미사용계좌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잡코리아 “작년 채용공고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 ‘금융’”

#### 입사지원자 가장 많은 ‘식음료’ 증가업종 ‘소셜커머스’

지난해 채용공고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금융’, 입사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식음료·외식’,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자가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쇼핑몰’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사사이트에 등록된 업종별 채용공고수와 입사지원자수 분석해 14일 밝혔다. 지난해 채용공고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은행·보험·증권·카드(금융)’ 등으로 연간 전체 채용공고수 중 9.0%로 높았다. 연간 등록된 채용공고 10건 중 약 1건은 금융업계 채용공고였던 셈이다.

두 번째로 채용공고가 많았던 업종은 ‘식음료·외식’으로 7.0%로 높았다. 세번째로는 ‘소셜커머스·오픈마켓·쇼핑몰’ 업종으로 연간 등록된 채용공고 중 5.2%로 많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오픈마켓·쇼핑몰’ 업종의 채용공고는 2016년 연간 공고 중 4.5%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0.7%p 증가한 5.2%로 집계됐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들 업종에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는 ▲백화점·유통·도소매(4.9%) ▲교육·학원(4.7%) ▲전기전자(3.8%) ▲부동산·중개·임대(3.5%) ▲물류·운송(3.4%) 업종의 채용공고도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직자들의 입사지원자수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식음료·외식’ 등으로 연간 전체 입사지원자수의 6.8%에 달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입사지원자가 많은 업종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쇼핑몰’로 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업종은 지난 2016년 입사지원자가 2.3%에 그쳤으나 지난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

